

영국, 주거용 건물 과열 방지 위한 정책 시행

<https://www.planningportal.co.uk/applications/building-control-applications/building-control/approved-documents/part-o-overheating/approved-document-o>
<https://eeabs.co.uk/the-new-part-o-building-regulations-overheating-approved-document-o/>

영국 정부가 여름철 주택 건물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전면 개편, 올 6월부터 시행한다. 영국에서는 기후 변화와 도시 열섬현상으로 도시 내 건축물의 과열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주거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서 단열, 밀폐 성능이 향상되고 있으며, 결국 이는 주택 내부 과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영국 정부는 CIBSE(Chartered Institute of Building Services Engineers)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회와 함께 주택 과열과 관련된 건축법령 Part O의 전면 개정을 추진, 개정안을 2021년 12월 발표, 올해 6월부터 시행하였다. 규정을 적용 받는 대상은 주택뿐 아니라 요양원, 학생 기숙사 같은 상업적 거주 시설 또한 포함한다.

규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주거용 건물의 과열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사량이 건물 내부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방지하는 것과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Part O에는 주거 건물 건축 시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영국 전 지역을 ‘고위험 지역(High risk location)’ 과 ‘일반 위험 지역(Moderate risk location)’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위험 지역에는 런던과 맨체스터 도심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규정에서는 바닥면적 대비 창문(유리)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의 최대 한도, 최소 개방 면적 비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규정에서는 도시의 공동주택 등을 개발할 때 보다 달성하기 쉬운 기준 또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CIBSE에서 개발한 과열 평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다. 특정 시간에 건물 내부 온도가 지정된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셔터나 외부 블라인드, 어닝 설치나 창문 사이즈와 디자인, 방향 등 외부 열 차단을 위한 설비적 대안 또한 제시하고 있다.



런던 주택가 모습
출처: shutterstock